

[종합·해설]

농업생산 5년내 2,000억 이상 ↓

■ 전남도 '중기 농업지표 전망' 발표

총생산액 2011년 5조 6천 870억 원으로 줄어

농가인구 10만명 이상 감소…농가당 소득은 증가

자유무역협정(FTA) 및 도하게 밟아졌다(DDA) 등을 통한 농업개방 확대와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오는 2011년 전남지역 농업생산액이 2천억 원 이상 줄고, 농가인구 역시 1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전체 농업의 경제적 외형은 축소되지만 농업 종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개별 농가당 소득수준은 연간 600만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4일 전남도가 발표한 '전남지역 중기 농업지표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11년 농업 총생산액은 5조 6천 870억 원으로, 지난 2006년의 5조 8천 970억 원에 비해 3.6%인 2천 100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축산물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총생산액이 1조 4천 60억 원에서 1조 2천 780억 원으로 9.1%인 1천 280원이 감소, 곡물류와 채소, 과수 등에 비해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수·화훼류는 같은 기간 동안 5천 580억 원에서

5천 250억 원으로 330억 원(5.9%), 채소·특작류는 2조 100억 원에서 1조 9천 730억 원으로 370억 원(1.8%), 곡물류는 1조 9천 230억 원에서 1조 9천 110억 원으로 120억 원(0.6%)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인구 역시 지난 2006년에는 46만1천 명이었으나 오는 2011년엔 36만 명으로, 5년 새 10만1천 명(21.9%)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농가 호수도 19만5천 호에서 16만3천 호로 3만2천 호(16.4%)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지면적도 쌀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비농업 부문의 토지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2006년 32만 4천ha였던 것이 2011년에는 30만5천ha로 19ha(5.9%)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전남지역 전체 농업의 경제적 외형은 축소되지만, 종사자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개별 농가당 소득 수준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 농가소득은 2006년 한 농

가당 2천797만4천 원이었으나 오는 2011년에는 3천411만 원으로, 5년 새 613만6천 원(22%)이 오르는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농가부채는 2006년 한 농가당 2천816만1천 원에서 매년 소폭 증가, 2011년에는 415만9천 원(14.8%)이 많은 3천232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 "특히 영농규모가 크고, 40세 미만의 젊은 영농계층일 수록 부채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농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경제연구원은 4일 '농업부문 비전 2030 중장기 지표 개발' 보고서에서 한미 FTA 체결과 함께 DDA 협상에서 한국이 개도국 지위 유지에 실패하고 선진국 지위를 적용받을 경우 2005년 현재 15조 원 수준인 농업 총소득은 2010년과 2020년 각각 11조5천억 원, 8조5천억 원으로 줄고 2030년에는 6조9천억 원까지 감소한다고 밝혔다.

농업 생산액도 2005년 35조1천억 원에서 2010년과 2020년, 2030년 각각 32조2천억 원, 29조4천억 원, 26조6천억 원으로 축소된다고 전망했다. 또 2005년 기준 127만 가구에 달하는 농가 수도 2015년 87만 가구를 거쳐 2030년에는 53만 가구로 감소하고, 농가인구 역시 343만 명에서 2015년 225만 명, 2030년 118만 명으로 줄어들고 예상됐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남북상생 현장 개성공단은 지금 ❸ 안정된 생산기지 만들려면



100만평 규모의 1단계 부지 조성이 마무리된 개성공단 현장에서 지난달 29일 시공사인 현대아산총이 각종 건설장을 동원, 굴재 파쇄와 콘크리트 혼합작업을 벌이고 있다.

"삼통 개선해야 성공"

(三通·통행·통관·통신)

개성 = 정후식 기자

지난 2003년 6월 착공돼 이듬해 5월 시범단지를 분양한 개성공단에는 현재 (주)신원과 로만손 등 23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 중이다. 지난해 6월 1단계(100만평) 부지 조성이 마무리됐으며,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용수·폐수처리 시설,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도 이달 중 완공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다.

투자환경·경쟁력 우수

입주업체들은 공단의 투자환경과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국이나 동남아의 경우 배로 제품을 실어오는데 2주 정도 걸리지만 개성공단은 서울에서 불과 60km 거리에 있어 물류비 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분양가는 평당 14만9천원으로 남한 국가산단 평균의 37% 수준이다. 월 67달러의 저렴한 인건비와 기술 지원에 있어 장벽이 없는 것도 강점이다.

개성공단지구관리위원회 북측 직원 흥설경씨는 "북측 근로자 가운데 고졸 출신이 78%, 전문대졸 이상이 22%"라고 극렴했다. 김근 위원장도 "입주업체들은 현재 북측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남쪽의

70~90% 수준까지 빠르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과 한전, 공동 소방대, 그린닥터스 협력병원, 편의점인 페밀리마트, 현대푸드뱅크 등 지원시설도 잇따라 문을 열었다.

시공사인 현대아산(주)은 2012년까지 3단계에 걸쳐 모두 2천만평(공단 800만평)을 개발, 호수생태공원과 골프장, 테마파크를 갖춘 '세계 최고의 생산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과급효과도 막대하다.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정준희 지원총괄팀장은 "1단계 사업 만 완료돼도 최대 500여개 기업이 입주, 7만~10만명의 북측 근로자를 고용하고 연간 생산액이 2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통행·통관·통신 등이 들판바 삼통(三通)의 개선이 가장 먼저 꼽힌다. 업체들은 연중 무휴, 상시 출입체제를 갖춰주기를 바라지만 현재는 공휴일 등을 이유로 연 80일 가량 제한되고 있다.

근로자 인사권도 문제

인터넷과 이동통신은 아직 사용할 수 없고 통관 절차도 출입계획을 미리 통보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편이다. 담당업체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부천공업 관계자는 "통행·통관 여건이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경제특구처럼 물류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업체들은 근로자 인사권에 대해 북측의 통제를 받아보니 경영의 자율성이 제약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입주기업이 늘어나면서 양질의 인력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美·日 등 판로개척 절실

수출도 현재는 EU나 중국, 러시아 등 무역장벽이 있는 곳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미국·일본 등에 대한 판로개척이 절실히다. 이를 위해 시공사인 현대아산(주)은 2012년까지 3단계에 걸쳐 모두 2천만평(공단 800만평)을 개발, 호수생태공원과 골프장, 테마파크를 갖춘 '세계 최고의 생산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과급효과도 막대하다.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정준희 지원총괄팀장은 "1단계 사업 만 완료돼도 최대 500여개 기업이 입주, 7만~10만명의 북측 근로자를 고용하고 연간 생산액이 2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통행·통관·통신 등이 들판바 삼통(三通)의 개선이 가장 먼저 꼽힌다. 업체들은 연중 무휴, 상시 출입체제를 갖춰주기를 바라지만 현재는 공휴일 등을 이유로 연 80일 가량 제한되고 있다.

지역기업들이 개성공단 투자를 머뭇거리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불확실성'일 것이다. 이에 대해 정준희 팀장은 "전쟁이나 몰수 등 최악의 사태로 진출기업이 손해를 볼 경우 남북협력기금으로 50억원 범위에서 손실금의 90% 까지 보상해주도록 돼 있다"며 "북측도 경제개혁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어 우리 기업에게 피해를 줄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who@kwangju.co.kr

박주선 前 의원 정치활동 재개

해남·광주 찾은 지방나들이…'선(SUN)클럽' 등 모임 분주



근 다시 모임을 주스르고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또 박 전 의원이 쟁기력이 사라져서 지난 4월 말 발생한 전남 도체육회 소속 간부 '흉기난동 살인사건'의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위원장 흥이식)는 최근 주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전남도가 오는 10월 전국체전을 앞두고 요청한 체육회 선수훈련비 등 6억8천800여만원을 전액 쟁기했다.

경제관광문화위 관계자는 "살인사건 발생 후 한 달이 넘도록 전남도나 체육회에서 죄인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낙담할 만한 후속조치가 있을 때까지 예산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 전남도체육회가 맹동단체 간부진도 최근 모임을 갖고 체육회 정상화를 위해 상임부회장 사퇴 권고안과 업무정지안 등을 체택하는 등 전남도의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와 체육회는 그동안 체육계 인사들과 잇따라 접촉을 갖고 의견수렴을 벌여 왔으나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호석기자 who@kwangju.co.kr

'흉기난동 살인사건' 여파?

도의회·체육회 추경예산 전액 쟁기

전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올 전국체전 선수후원비 전액이 쟁기되는 등 지난 4월 말 발생한 전남 도체육회 소속 간부 '흉기난동 살인사건'의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위원장 흥이식)는 최근 주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전남도가 오는 10월 전국체전을 앞두고 요청한 체육회 선수훈련비 등 6억8천800여만원을 전액 쟁기했다.

경제관광문화위 관계자는 "살인사건 발생 후 한 달이 넘도록 전남도나 체육회에서 죄인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낙담할 만한 후속조치가 있을 때까지 예산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 전남도체육회가 맹동단체 간부진도 최근 모임을 갖고 체육회 정상화를 위해 상임부회장 사퇴 권고안과 업무정지안 등을 체택하는 등 전남도의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와 체육회는 그동안 체육계 인사들과 잇따라 접촉을 갖고 의견수렴을 벌여 왔으나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호석기자 who@kwangju.co.kr

전통 침·뜸 공개 강좌

공개강좌·설명회
6월 8일(금) 오후 2시

- 전문과정 연수 후 중국침구사 및 중국자격증 취득
- 의료개방 및 의료법 개정 대비 침구인 양성과정

주요과목 체침(전통침), 뜸, 부항, 경혈, 경락, 두침, 미용침법, 비만침법, 피부관리, 약용식물관리, 한방기초 등

※ 본강의 : 매주(금) 14:00~18:00 (총 16주) ※ 광주분원 : 자하철 중심사업구역 2번출구

☎ 236-3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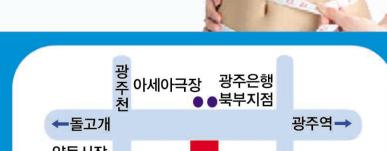
CH 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지리산한약방 (국내산한약재료사용)

다이어트·전립선염·조루·허리디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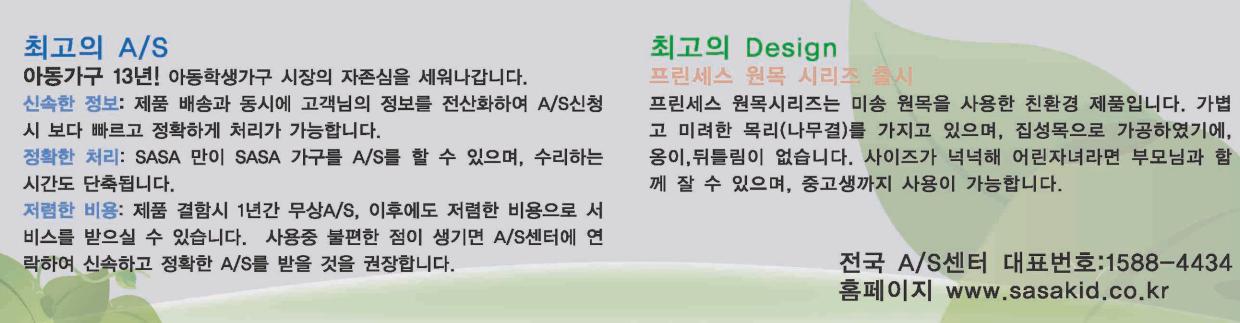
자세한 자료는 www.jir.wo.to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문의 (062)531-3636, 531-0700
523-4600, 011-9612-5530



SASAS
FOR CHILD & JUNIOR ROOM

SASA&톰과제리의 새로운 이름 "SASA"
아이들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해가는
새로운 SASA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전국 A/S센터 대표번호: 1588-4434
홈페이지: www.sasakid.co.kr